3년 연속 국가예산 1조원 달성

군산시, 내년도 1조103억원 확정…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 등 명품 새만금 조성 박차

군산시 2018년도 국가예산이 1조 103억원으로 확정되며 3년 연속 1조원 시대를 열었다.

이는 지난해 확보했던 국가예산 1조 40억원을 뛰어 넘는 사상 최대 규모로 2006년 7월 문동신 군산시장의 민선4기 취임 당시 5,173억원에 불과했던 국가예산이 10여년 사이에 두 배가 된 것이다.

2018년도 군산시의 주요 국가예산사업으로는 ▲새만금 내부간선 남북2축도로 1,150억원 ▲새만금 신항만 건설 309억원 ▲금강2지구 대단위 농업개발사업 270억원 ▲비응항 정온도 개선사업 70억원 ▲바이오콤비나트 기술개발사업 24억원 ▲중대형상용차글로벌 경쟁력강화사업 16억원 ▲플라즈마기술 복합연구동 건립사업 32억원 등이며, 특히 의미 있는 신규사업으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에 5억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새만금의 땅길, 바닷길인 동서2축·남북2축 도로, 신항만과 함께 명품 새만금 조성에 박차를 가할수 있게 되었으며,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를 대비한 준비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게 되었다.

두 번째로는 총사업비 120억원의 '근대항만역사관'은 정부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던 사업으로 문 시장의 끊임없는 노력과 김관영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국회단계 예산활동을 통해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양했다.

본 사업은 군산 내항일원에 항만의 역사를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항만역사체험관, 교육·전시공간, 전망대 등을 2020년까지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1년 근대역사박물관 개관 이후 시간여행마을에 또 다른 대형 관광하드웨어를 보강할 수 있게 되었다.

세 번째는 총사업비 85억원인 '국립 신시도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설계비 4억원 반영으로, 본 사업의 예산반영은 지난 2007년 산림청 고시 이후 10년 만의 쾌거인데다 군산시가 2015년 국비확보에 도전한 지 3년만의 성과여서 의미가 크다.

새만금 방조제와 고군산연결도로의 부분개통 이후 수많은 관광객이 이곳을 찾고 있으나 신시도 등 고군산 일원의 부족한 휴양시설은 관광도시로 급부상한 군산시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점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에 내년 1월 고군산연결도로가 완전 개통되면 많은 관광객이 모여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신시도 자연휴양림 조성은 체류형 관광활성화와 고군산개발 투자유치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군산시는 2018년도 국가예산이 1조 103억원으로 확정되며 3년 연속 1조원 시대를 열었다.

세 사업 모두 지방비 부담이 없는 100% 순수 국비 사업으로써 그 의미가 큰 사업이다.

넷째로는 '중소형선박 기자재 품질고도화센터 구축사업(4억원)'이다.

2022년까지 180억원이 투입되며, 본 사업을 통해 대기업 의존도가 높은 중소 조선업체들이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에 따른 도산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자체 생존력 향상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동신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3년 연속 국가예산 1조원을 돌파할 수 있었던 것은 시 공무원 모두가 중앙부처 및 국회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며, 지역현안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끊임없이 설득했던 점과 김관영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추진력, 전북도 지사님과 시의회의 전폭적인 지원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정치권 및 전북도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2019년 국가예산 확보에도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군산대학교, 2018학년도 정시모집

가군(실기위주) 58명 · 다군(수능위주) 460명 총 518명

군산대학교가 2018년 1월 6일부터 1월 9일까지 2018학년도 대입정시모집 원서를 접수한다.

모집인원은 2018학년도 전체 모집인원인1736명의 29.8%인 518명이다.

정시 가군은 실기위주 전형으로 예·체능 계열만 선발하고, 수능위주 전형인 정시 다군에서는 예·체능 계열을 제외한 나머지 전형을 모집한다. 정시 가·다군의 특별전형은 농어촌학생, 특성화고졸업자, 기회균형선발, 특수교육대상, 선취업후진학 전형으로 수시모집에서 미충원된 인원을 추가로 선발할 예정이다.

올해 정시모집부터 정시 가·다군 모두 학생부 성적을 반영하지 않고 수능 반영비율을 높였다.

정시 가군은 음악·미술 계열(수능 50%, 실기고사 50%)과 체육학과(수능 71.4% 실기고사 28.6%)이고, 다군은 수능 100%이다.

정시 다군은 수능성적을 100% 반영하게 되어 전년도에 비해 변화의 폭이 넓으리라 예상되니 본인의 수능성적과 전년도 경쟁률을 참고하여 학과를 지원해야 한다. 원서접수는 유웨이(www.uwayapply.com)와 진학사 (www.jinhakapply.com) 등 온라인에서만 가능하고, 합격자는 2018년 2월 6일(화) 오후 6시 이전 군산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에서 발표한다.

/군산=김판곤 기자

원광대 김종인 교수

제학술지 '인류건강연구' 편집위원장 선임

원광대학교(총장 김도종) 사회과학대학 복지보건학부 김종인(사진 보건행정전공) 교수가 국제학술지인 '인류건강연구(Journal of Human Health Research)' 편집위원장으로 선임됐다.

김종인 교수는 앞으로 인류건강과 관련한 연구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을 배정하고, 해당 저널에 수록될 논문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한편, 김종인 교수는 최근 5년간 국제 SSCI 저명학술지에 8편의 논문을 게재했으며, 현재 노년학 관련 국제학술지 12개의 편집위원과 원광대 장수과학연구소장을 비롯해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로 선정된 국내 학술지 '보건과 복지'를 발행하는 한국보건복지학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익산=장양원기자

익산시, 내년도 국가예산 6721억원 확보… 역대 최대 규모

익산시(시장 정헌율)는 이춘석?조배숙 국회의원 등 지역 정치권과 송하진 전라북도지사의 협조로 내년 국가예산이 올해보다 218억원 증액된 6,721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정부안 6,382억원보다 339억원이 국회단계에서 추가 증액되는 성과를 거둔 것이다.

익산시 국가예산은 2015년도 6,179억원, 2016년도 6,229억원을 확보하여 점진적으로 증가하다가 2017년도 6,503억원, 2018년도 6,721억원을 확보하여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번 예산 확보는 정부의 내년도 국가예산의 중점투자 방향이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 대응, 저출산 극복 등 새 정부 정책과제 중심으로 편성된 가운데 익산시 국가예산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SOC 및 산업분야가 대폭 축소되는 힘든 여건에서 이룬 성과여서 더욱 의미가 크다.

익산시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한 내년도 신규 사업은 △익산역 방호벽 설치공사(17억원), △낭산 석산복구지 처리비용(15억원), △하수찌꺼기 감량화 사업(10억원)이다.

이외에도 △공공보건기관 기반 확충 사업(16억원), △서부권역 다목적체육관 건립 사업(15억원), △말 산업 육성사업(7억원) 등 최종 31건에 175억원의 신규사업이 예산 반영되어 중점 사업 추진에 큰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계속사업에는△금강2지구 농업종합개발사업(270억원),△국가식품클러스터 진입도로 확장공사(136억원),△왕궁현업축사 매입 및 생태복원 사업(127억원),△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120억원),△만경강 하천환경 정비사업(107억원),△귀금속보석 클러스터 조성(29억원) 등 344건, 6,546억원을 확보하여 내년에도 현안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익산시는 정치권과 유기적인 공조체계를 구축해 △만경강 하천환경 정비사업 107억원(27억원 증),△귀금속 보석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29억원(24억원 증),△국도 27호 대체우회도로(서수~평장) 개설사업 50억원(20억원 증),△하수찌꺼기 감량화 사업 10억원(5억원 증) 등을 증액 반영시키는 눈에 띄는 성과를 이뤄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이번 국가예산 확보는 부처 단계에서부터 이춘석, 조배숙 의원과 상시 소통채널을 가동하여 국가예산 확보 전략을 수립했고, 국회 심의 단계에서는 시 핵심 전략사업을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예산 반영을 요청해 얻어진 결과"라며 지역 국회의원들의 노고에 많은 고마움과 감사를 표했다.

/익산=장양원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익산시, 공공하수도 운영 · 관리 실태평가 최우수상 수상

익산시(시장 정헌율)가 환경부에서 실시한 '2017년도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평가'에서 하수도분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12월 7일 제주도에서 개최한 2017년도 하수도 연찬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평가'는 환경부가 전국의 공공하수도 관리청을 대상으로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01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환경부는 전국 166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공하수도 공통분야, 운영 관리분야, 정책 분야 등 3개 분야 27개 항목에 대하여 현장 평가를 진행하고, 지난 11월 2차 점검을 통해 익산시가 최우수상으로 최종 선정되었다.

정헌율 시장은 "앞으로도 환경부의 공공하수도 정책에 부합하도록 공공하수도 시설개선과 효율적인 운영에 힘쓰고,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여 주민들로부터 신뢰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어린이 안전도시 군산 만들기' 캠페인 전개

어린이행복도시 군산시는 7일, 수송동 롯데마트 사거리에서 유관기관(경찰서, 교육지원청)과 합동으로 '어린이 안전도시 군산 만들기 캠페인'을 실시했다.

실종, 유괴, 아동학대, 학교폭력 등 어린이 관련 범죄로부터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해 진행된 이날 캠페인은 시청 및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관계자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어린이 안전'에 대한 시민의식 함양을 목적으로 제작된 리플릿을 배부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최성근 어린이행복과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군산시가 유관기관과의 공감대를 형성해 시민들에게 어린이 안전의 중요성에 대해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어린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조성을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는 지난 13일, 행정안전부에서 주최한 '제7회 어린이 안전대상'에서 어린이 안전시스템 구축 및 어린이 안전교육 기반개선 등의 공적을 인정받아 대통령상을 수상하며 '어린이안전 최우수 도시'의 영예를 안았다.

/군산=김판곤기자